

10여년 전...

응... 이제 집에 도착했어.

들어가서 또 연락할게.

꽂

...이제 와?



!

신우야! 놀랐잖아. 거기서 뭐해?

.....



... 남친이랑 노느라  
시간가는 줄 모르나봐?

요즘 엄청  
즐거워보이네.



.....  
미안...

아직 저녁 못 먹었지?  
얼른 차려줄...



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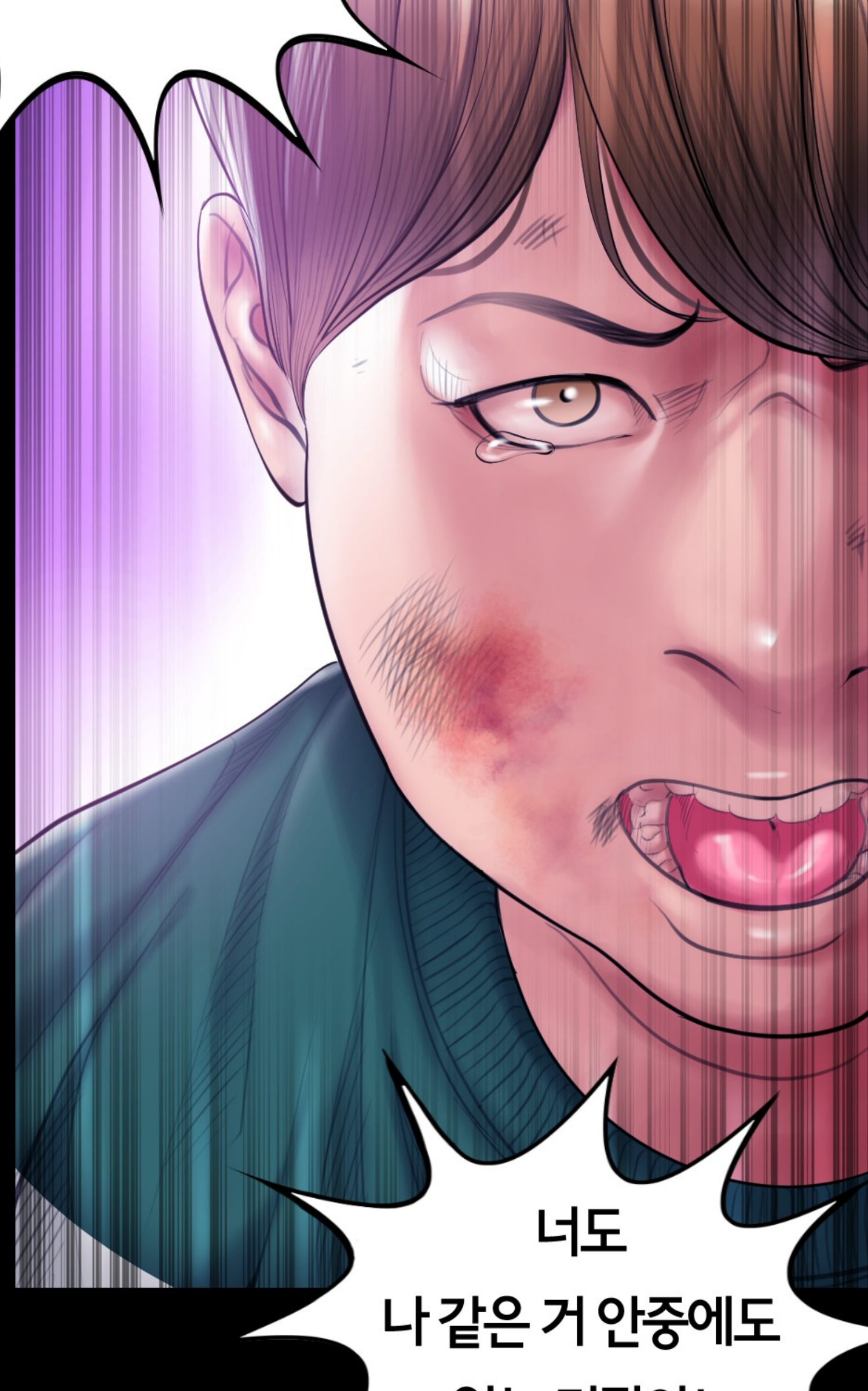
... 너도 결국  
엄마랑 똑같아.

내가 학교에서  
무슨 일을 겪는지...  
아무 관심도 없어.



...!

바람나서  
집 나간 엄마처럼...



너도  
나같은 거 안중에도  
없는 거잖아!

.....



시, 신우야...



그런 소리 하지마...



난 어떤 일이 있어도...  
네가 우선이야.

신경 못 써줘서  
미안해...

신우는 애정결핍이 심한 아이였고, 나는 동생을  
돌보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다.

신우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고,



엄마 역할까지 병행하다보니  
자연스럽게 연애나 취미같은 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.

그래도 그런 삶을 후회해본 적은 없다.



내 보살핌 덕분에 신우는 제법 듬직한 어른으로 성장했..

제법 듬직한 어른으로 성장했..


신우의 집착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다.

이, 이신우!  
뭐하는 거야?!



쓰레기 새끼가...  
감히 내 누나를 넘봐?

뒤지기 싫으면  
씩 꺼져!



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 
하길래 집적대는 남자가  
이리 많은 거야?  
걸레도 아니고.

뭐?  
남의 핸드폰을 왜 보냐고?  
남매시간에 폰 좀 보는 게  
뭐 어때서?

후우...

이렇게 아름다운 누나를  
다른 남자에게 준다니...  
상상도 하기 싫어...

으음...

?!

넌...

영원히  
날 벗어날 수 없어...

뭐지... 이 기억들은?

뭐지... 이

진서연한테  
대충 얘기 들었어.

...!

부모가 집을 거의 방치해서  
너 혼자 동생을  
키우다시피 했다며?

그래서 동생이 너를  
너무 의지하다 못해 집착하는  
지경까지 이르렀고.

하  
라  
꺅  
꺅

아हत..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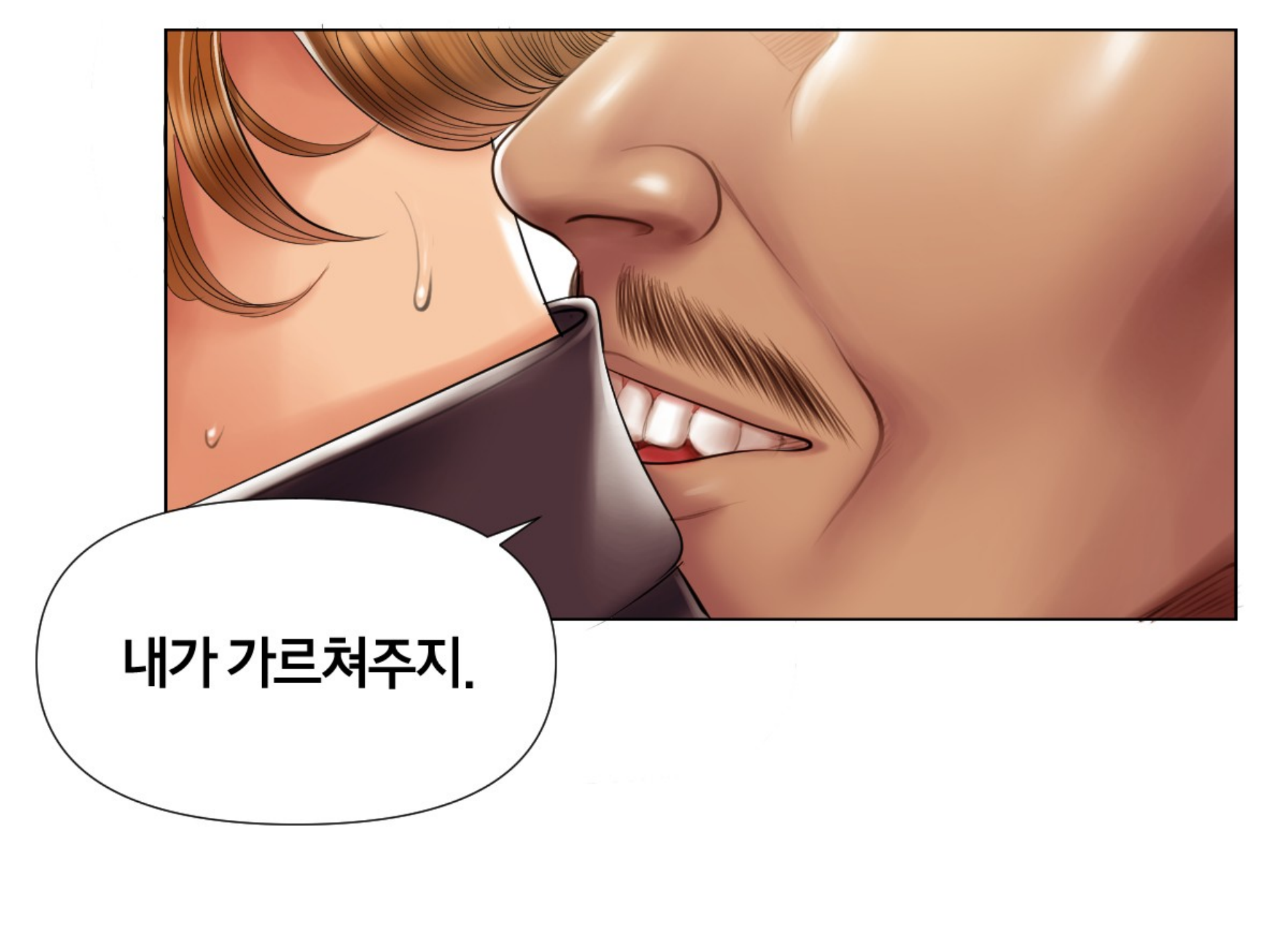
아앙...♡

아훗...♡



못난 동생  
뒷바라지 하느라...  
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,

여자로서의 행복도  
누리지 못했겠군.  
정말 힘들었겠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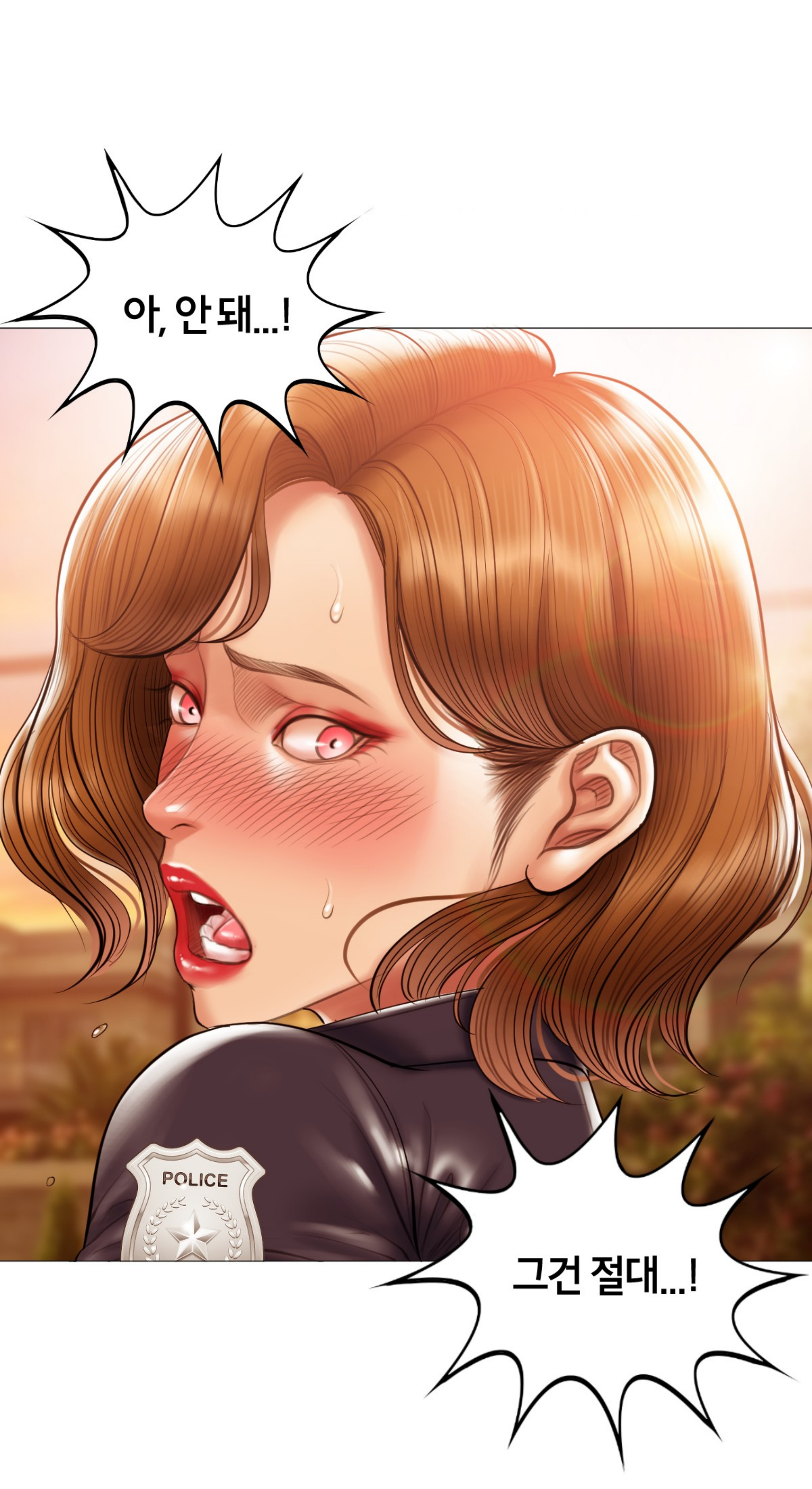


내가 가르쳐주지.



'암컷의 행복'을.

...!



아, 안돼...!

그건 절대...!

쓸데없는 자존심  
부릴 필요 없어요.

?!

당신도 알고  
있잖아요?

습-파

당신의 몸은 이미...

암컷의 쾌락을  
갈망하고 있다는 것을.

푸

욱

!!

응호오웃♡♡

뭐, 뭐야...  
이거엇♡♡